

짧은 연휴 신나게 보내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다. 먼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날 수도 있는, 일과 학업에 지쳐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지 못했던 내 가족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을 빌어 짧은 연휴지만 가족들과 잠깐의 나들이라도 다녀오려는 시민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지역 문화기관 등지에서 한가위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민속체험은 물론이고 전통 공연, 즐거운 퍼포먼스, 교육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아이 손을 잡고, 혹은 부모님 손을 잡고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하나 즐겨보는 건 어떨까.



포문화전당

빅도어시네마·아시아전통놀이 체험 등

전통공연

시립창극단·남도국악원·전통문화관 등

광주과학관

보름달 관측·달 탐사 특집전 등 운영

광주박물관

역사인물체험·사물놀이체험 등 이색적

◆ACC서 한가위 즐겨볼까

추석 명절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곳곳이 놀이터가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2~15일까지 '한가위 한마당 보름달 아시아'를 어린이문화원에서 운영한다. 아시아 전통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어린이들이 직접 놀이도구를 만들어볼 수 있는 창작 프로그램, 추석 맞이 특별 공연 등이 진행된다.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마술 퍼포먼스 '신의 손', 퓨전 국악 공연 '한가위풍류' 등 무료 공연이 어린이문화원 로비에서 진행되며 '점박이' 등 명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극장에서 상영한다.

12~13일 오전 11시·오후 3시 어린이극장에서는 ACC 창작공연 '옹감한 탄타'가 관객들을 만난다. 방글라데시 민담을 소재로 했다. 관람료는 추석특별할인으로 5천원이며 3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관람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에서 매주 일요일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놀러와, 이야기 숲으로'가 추석 특집으로 진행된다. 여러 명절 문화를 담은 도서연계 창작활동(종이한복 만들기, 강강술래 인형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프로그램 '빅도어시네마'도 준비된다.

12~13일 ACC예술극장 극장1 빅도어 앞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빅도어 시네마'는 추석 특집으로 토크콘서트 남무성 감독의 '브라보 재즈 라이프'가 진행된다. 또 열정의 영화 '위플래쉬'가 상영되며 더불어 위플래시 밴드의 공연까지 볼 수 있다.

'빅도어 시네마'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가능하다.

한편 ACC는 추석연휴기간인 12~15일에도 전당을 운영한다. 또 가을여휴주간, 미술공간을 맞아 연휴 기간 관람료를 할인하며, 이 기간 아시아 전통의상을 입고 어린이문화원을 방문하면 어린이체험관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명절 분위기 물씬 나는 전통공연

가족들과 즐기 좋은 전통 공연들도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가장 먼저 광주시립창극단이 11일 무대에 오른다. 시립창극단은 이날 오후 3시, 5시 유스퀘어 야외공연장에서 찾아가는 광주국악 상설공연 '한가위 국악한마당'을 펼친다. 이날 무대는 남도 소리를 알리고 고향의 푸근한 정취와 흥겨운 분위기를 전달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 열리는 이번 공연은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광주 무등산 호랑이를 형상화한 탈을 쓰고 선보이는 '사자춤', 단막극 '화초장', 궁중 잔치의 꽃인 화려한 전통춤 '교방무'로 꾸며진다.

이어 한가위 풍속을 이야기하는 노랫말로 구성된 '팔월가', 민요 '풍년가' 무대로 한가위 정취를 선사한다. 공연의 대미는 '강강술래'이다. 남생이 놀이와 고사리 꺾기, 청어엮기 등 다양한 춤과 놀이를 공연자와 관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13일에는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이 한가위 분위기를 더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이날 오후 7시 진악당에서 '달빛 속, 만난 국악'을 선보인다.

이번 특별공연에서는 민요 '달맞이' '팔월가' '진도아리랑'과 무용 '강강술래', 단막극 '홍보가 중 화초장', 사물·무용 '신명의 판' 프로그램

을 펼친다.

또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악당 앞 광장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떡메치기, 전통팔찌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먹거리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

전통문화관은 토요상설공연과 일요상설 공연을 추석특집으로 꾸며 관객들을 만난다.

14일에는 오후 3시에 전통혼례 창작마당극 '연지곤지'를 통해 전통문화의 멋과 미(美)가 담겨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15일은 공연과 다양한 체험으로 채워진다. 오후 1시 너털마당에서는 널뛰기와 딱지치기, 알밤 보물 찾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한가위 무등놀이'이 운영된다. 오후 2시에는 풍요를 기원하는 '강강수월래', 오후 3시 '양상불연'이 진행되는 악가무 공연 한가위 달맞이를 위한 '흰·달·잔·치'가 펼쳐진다. '한가위 무등놀이'부터 '흰·달·잔·치'까지 행사에 참여한 후 '전통문화관 한가위 무등놀이'에 완수 스티커를 획득한 참여자에게 기념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국악상설공연도 11일과 14일 오후 5시에 광주공연마루에서 공연을 갖는다.

◆아이들과 즐기는 이색 체험

과학관, 우주센터, 박물관과 함께 하는 이색적 명절 나들이 장소도 눈에 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추석을 맞아 12일과 14~15일 한가위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통놀이마당, 체험마당, 공연마당, 대화마당, 이벤트마당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세계각국 민속놀이 체험과 보름달 망원경 만들기 등이 매일 진행되며 12일에는 사물놀이와 아

빠 허벅지씨름대회가 펼쳐진다. 14일에는 클레이 추석음식 만들기과엄마 팔씨름대회, 샌드아트 공연이, 15일에는 나만의 제기 만들기, 온가족 제기차기 대회, 사이언스매직쇼가 진행된다.

특히 12일에는 보름달 관측이 마련돼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11일부터는 달착륙 50주년 기념 특별전 '우주로의 도전'이 진행돼 NASA와 대한민국 우주개발에 활용된 각종 탐사기술 체험,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인 체험, 달 착륙 VR 체험, 달 탐사선 조종 체험 등을 경험해볼 수 있다.

이밖에도 3대가 함께 특별전을 관람하면 달 시계를 받을 수 있고 한복을 착용하면 우주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도 12~15일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름달을 관측하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갈 수 있도록 망원경과 장비를 추가하고 아이들을 위한 망원경, 별자리판, 해시계, 태양계 모형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준비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13일은 제외한 12~15일 문을 열고 한가위 행사를 갖는다. 박물관 일원에서는 기간 동안 전통&추석의 놀이체험과 사물놀이 체험, 재미로 보는 옷짓 등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족영화극장도 대강당에서 12일, 14일, 15일 운영된다.

특히 14일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샌드아트쇼, 슈도우 아트쇼, 코믹매직별룬쇼, 스토리버블쇼, 레이저쇼 등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판타지 더 판타지쇼', 아카펠라 그룹 두왓사운즈 초청 한가위 음악회, 역사인물체험인 오이지와 함께 하는 '조선시대 여행'도 진행된다.

김혜진기자 hj@srb.co.kr



시립창극단 교방무



acc 마술퍼포먼스 '신의 손'



시립창극단 '강강술래'



광주과학관 관측